제5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시상식

일시: 2006년 12월 20일 (수)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제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편집국·방송국·출판국의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들이 1975년 3월 결성한 이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 실천에 앞장선 단체이며 113인의 위원과 7인의 명예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 군사정권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신문과 방송의 제작에 개입했고 정보기관원들은 수시로 언론사를 출입하며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순응한 언론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그 동안의 무기력함을 반성하고 언론자유를 회복하고자 1971년 4월, 1973년 11월, 1973년 12월 3차에 걸쳐 '언론자유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안팎의 높은 벽에 막혀 전반적인 언론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용기와 실행할 조직이라는 것을 절감한 기자들은 1974년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과 방송에 실천결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언론인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광고가 끊이지 않아 참언론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동시에 경영진과 마찰을 겪던 기자·방송인들은, 자유언론운동에 깊이 참여한 동료들이 갑자기 해임되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자 '실천선언수호'

를 위하여 제작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17일 사내에서 농성중이던 사원들을 강제해산 하고 해임하였습니다. 이 즉시 기자들은 3월 18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개월간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에 항의했으며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1977년 4월에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구국헌장'에 위원 54명이 서명한 후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하면서 '동아투위'의 활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1978년 10월에는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 일지'를 '동아투위 소식'에 실었다는 이유로 '동아투위' 위원들이 구속되었으나 법정에서 자유언론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4년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12인의 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새언론 창간·제도언론 개혁·민주화운동세력과의 연대투쟁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제도언론이 금기시 하던 사실을 보도하고, '보도지침'과 같은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하면서 언론운동에 앞장 서게 됩니다.

이후 자유언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언론 '한겨레신문'의 창간에 참여했고,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제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언론의 신장과 진실보도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요한 사회 및 언론계 현안에 대하여 '자유언론실천' 정신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언론통제 아래서 언론인의 책무를 자각하고 자유언론 실천에 앞장섰고, 해직 이후에도 사회 각층에서 언론자유 신장・사회민주화・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지난 30여년 동안 자유언론수호의 기치를 내리지 않은 '동아투위'의 활동이 고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민족・민주・자유・비판 정신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 상을 드리도록 결정합니다. '

동아투위'가 기나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지켜온 자유언론의 불씨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남고, 고난 속에서 내디딘 한걸음 한걸음은 언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상이 이미 고인이 되신 위원들과 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자유언론실천은 영원한 현재진행형의 과제임을 언론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계기이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제5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정경희 언론인
위 원 이해동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위 원 백선기 한국방송학회장
위 원 한균태 한국언론학회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위원 113 인

강운구 고준환 국흥주 권근술 권도홍 권영자 김기경 김대은 김동현 김두식
김명걸 김민남 김병익 김순경 김양래 김언호 김영환 김욱한 김유주 김재관
김종철 김진홍 김창선 김창수 김태진 김학천 남기재 맹경순 문영희 박경희
박노성 박순철 박종만 박지동 서권석 서창식 성유보 송경선 송관률 송재원
송준오 신양휴 신영관 신정자 신태성 신해명 심정섭 안상규 안성열 양한수
오봉환 오정환 우승용 유영숙 윤석봉 윤성옥 윤활식 이경자 이계익 이규만
이기중 이길범 이동운 이명순 이문양 이병주 이부영 이영록 이인철 이재민
이종덕 이종대 이종욱 李宗郁 이지선 이태호 이해성 임부섭 임수진 임응숙
임채정 임학권 장윤환 정동익 정연주 정영일 정흥렬 조강래 조성숙 조양진
조영호 조학래 최남경 최학래 한현수 허 육 홍명진 홍휘자 황명걸 황윤미
황의방 (이상 101명)

유명을 달리한 위원들

강정문 김덕렴 김성균 김인한 배동순 심재택 안병섭
안종필 이의직 조민기 홍선주 홍종민 (이상 고인12분)

명예위원 7 인

홍건표(AP 통신) 정호상(아사히 신문) 다메다 에이이찌로(아사히 신문)

오구리 게이따로(아사히 신문) 에자와 고지(교도 통신/별세)

오노다 아끼히로(교도 통신) 후루노 요시마사(마이니찌 신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연혁

1974. 10. 24. 09:00 시

* 동아일보사 기자 200 여명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를

열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

1974. 10. 26.

* 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 집행부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의 결의를 효율적으로 신문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문 방송제작 내용 점검

1975. 1. 8.

* 방송제작에서의 자유언론실천을 위하여 "동아방송 자유언론실행총회" 결성

1975. 3. 12.

* 동아일보 기자총회 및 방송실무진 총회, 신문 방송 제작 거부, 농성 돌입

1975. 3. 15.

* 동아일보 송건호 편집국장 사표제출

  - "현재의 사태수습은 해임사원을 즉각 복직시키는 길 뿐"이라고 호소

1975. 3. 17.

*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중이던 160 여 기자 및 사원들, 술취한 폭도들에 의해 강제 축출

  - 성명서 : "폭력에 밀려 동아일보를 떠나며"

1975. 3. 18.

* 강제 축출된 기자 사원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하 동아투위) 결성

  1975. 6. 24.

* 동아투위, 미국 AD 지 '러브 조이' 자유언론상 수상

  1975. 9. 17.

* 동아투위 발족 만 6 개월. 동아일보사앞 출근시간 도열 중단

1977. 3. 1.

* 3.1 절을 전후하여 동아투위원 대부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금, 감시받음

1977. 4. 15~24

* "민주구국헌장"에 서명한 동아투위원 54 명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음

1977. 10.24.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3 주년. 무교동 태화관에서 각계 인사 250 여명 참석하여 기념식을 하고 "자유언론실천 77 선언" 채택 후 동아일보사까지 행진

1977. 12.30.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주민족언론선언" 공포

1978. 6. 17.

* '투위소식'에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에 관한 기사 싣기 시작

1978. 10. 24. 10.24 민권일지사건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 주년 기념식, 명동 한일관

지난 1 년동안 당시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은 "보도되지 않은 민주민권일지" 배포

1979. 7. 13.

* '제 2 차 민권일지사건' 선고공판. 세 위원 전원에 유죄판결.

1979. 8. 8.

* '10.24 민권일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 인 위원들에 전원 유죄판결

1984.12.19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에 12 인의 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

1987. 10. 24.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13 주년 기념식 및 '안종필 자유언론상' 제정

* 제 1 회 안종필자유언론상 시상 - 수상자 김주언 한국일보기자 "보도지침 폭로"

1987. 11.

* <동아투위 자유언론운동 13 년사> 자료집 출간

1989. 11. 18

* 동아일보사 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 백서> 발간

1993. 3. 17.

* 동아투위 결성 18 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동아일보는 120 명 동아해직 언론인을 복직시켜라' 제하의 성명서 발표

1993. 4.

*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70 년대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규명 요청

1993. 5. 17.

* 동아투위, '민주언론운동 20 년 사진전' 개최

1995. 3. 17.

* 동아투위 20 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0. 3. 17.

* '동아투위' 결성 25 주년 기념식: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가짐

* 김태진 전 위원장 <한국언론 바로보기>(도서출판 다섯수레) 발행

2000. 3. 27.

* 인터넷 동아투위 홈페이지(http://www.donga1024.or.kr) 개설

2000. 6. 26.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 보상법')이 제정 선포됨에 따라 동아투위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위하여 '대책위원회' 구성

2000. 10. 1.

* 동아투위의 결성과정과 지난 25 년간 활동을 정리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화운동 25 년'발간 128 면, 타블로이드판, 도서출판 다섯수레 펴냄

2004.10.24.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30 주년 기념식 거행

2005 년 2 월

* <자유언론 1975~2005 동아투위 30 년 발자취> 발간

2005.3.17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30 주년 특별성명 발표

<자유언론 실천선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1.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1.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될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자유언론 실천강령>

1.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화적 잘못을 색출, 이를 고발한다.

1.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주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진실되게 보도한다.

1.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민주인사와 그 가족들의 안위를 성실하게 취재 보도한다.

1.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부패를 과감히 파헤쳐 그 실상을 보도한다.

1. 우리는 관 일변도의 기사보다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많은 불우한 국민의 편에 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충실하게 취재 보도한다.

1. 우리는 광고탄압으로 빚어진 난국을 다같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자유언론을 굳게 지키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특히 불순한 책동과 패배적인 타협을 경계하면서 거사적인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탄압받고 있는 동아일보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는 국내외 민주국민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자유언론실천에 더 한층 분투 노력한다.

1975년 1월 10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결의문>

동아방송 자유언론 실행총회는 동아방송의 광고 무더기 해약사태에 즈음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동아방송의 주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동아방송은 언론의 자유와 편성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방송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며 문화발전과 경제번영 사회순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그리고 자유와 정의 편에 서서 어떠한 독재에도 반대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동아방송의 주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둘째, 우리는 앞으로 동아방송과 동아일보에 대한 외부세력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1975년 1월 8일
동아방송 자유언론 실행총회

제1차 민권일지 사건 항소심 최후 진술

* 제1차 민권일지 사건은 1978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배포된 <동아투위소식>에'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 사건 일지' 125건을 게재하자, 긴급조치9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아투위' 위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안성열 위원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국정참여를 봉쇄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정권연장의 도구이다. 그것으로 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유언론을 위해 희생할 각오이다."

장윤환 위원

"황포한 자의 목소리만 크고, 약한 자의 소리는 신음조차 안 들린다. 감옥에 갇힌 펜과 마이크는 이 땅의 언론의 현주소이다. 어떤 자유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자유도 마찬가지다. '마찌니'의 고전적인 명제처럼, 자유언론이란 나무는 언론인의 피로써 길러지고, 펜과 마이크로 수호돼야 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이 상식이 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 나라가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김종철 위원

"우리들은 기자로서, 이런 걸레 같은 신문, 파렴치한 신문, 뻔뻔한 신문을 보면서 꿈틀거리는 자존심, 솟구치는 양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언론이 이 지경이 되니까 독재가 가능한 것이다. 언론자유는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탄할 언론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투위소식>에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중요 사건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나마 남기고자 한 것이다."

안종필 위원

"우리들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죄가 되어 구속됐다. 언론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다가 구속된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은 시행되기 전에 철폐해야 한다."

홍종민

“인간의 자기표현, 언어를 통한 표현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유인물이나 <민권일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한 것뿐이다. 우리 투위원들은 하나하나 모두 그저 평범한 존재다. 우리가 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것 역시 ‘분서갱유’ 사건과 같다. ‘분서갱유’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독재자의 악명과 함께 오래오래 남듯이 우리들의 사건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들은 진상을 알 것이다.”

박종만 위원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의 뜻을 잘 몰랐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실업자로서 겪는 고통, 끊임없는 감시의 눈초리로 인한 고통을 견디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참회하고 자유언론을 실천함으로써 이 민족 이 민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우리가 자유언론실천 대열에서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민족과 이 민중에게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만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 아직도 우리는 부끄럽다.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도 믿지 않는다.”

정연주 위원

“우리들의 감옥생활, 이것 역시 이 시대 이 사회의 양심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감옥에 잡혀 들어오면서부터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의지가 성숙되고 있다. 이것 또한 나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유언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통감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자유언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자유언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빼앗겼던 것이다.”

제2차 민권일지 사건 항소심 최후 진술

* 제2차 민권일지 사건은 1978년 12월 27일 동아투위 송년모임에서 배포한 <동아투위소식>의 내용이 긴급조치9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아투위' 위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윤활식 위원

"언론자유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수고도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누리는 언론자유는 한마디로 투쟁의 역사다.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자유이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언론자유는 싸워서 얻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이며, 싸워서 지키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자유이다. 지금은 우리 언론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이기중 위원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목숨보다 값진 것이다. 앞으로 긴급조치보다 더 악랄한 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법관은 기자나 의사, 성직자와 함께 단순한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안되는 직업이라고 한다. 우리는 월급쟁이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재판관이 나오기를 바란다."

성유보 위원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사회와 언론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은폐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을 통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이 일어난다. 그럴 때 그것이 언론이든 뭐든 국민이 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축사 -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이상희

동아투위, 시대의 어둠을 밝힌 불꽃

한 해를 보내느라 바쁘신 가운데 <제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를 축하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께 재단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겠지만 올해는 우리사회가 유난히도 리더십 부재라는 몸살을 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믿고 따를 만한 권위와 도덕성을 가진 어른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양심과 대의에 따라 묵묵히 외길을 걷던 청암선생이 더욱 그립습니다.

저는 요즘 거침없이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보면서 넘치는 언론자유를 실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보도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오죽했으면 권력의 간섭에 지쳐 언론인들 사이에 차라리 신문사설을 없애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언론통제가 심했던 시대를 떠올리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언론자유의 신장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언론의 굴종과 침묵을 지켜본 저로서는 언론 스스로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희생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가장 충실했던'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5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청암선생과 '동아투위'의 깊은 인연을 생각할 때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하는 걸 일부러라도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국 언론자유운동사에서 '동아투위'의 위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고, 오히려 동아투위가 역차별을 받아 수상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성된 지 30여 년이 되는 '동아투위'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언론인의 실천 없이는 언론자유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통제받던 언론현실 앞에서 분노하면서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몸을 던져 실제 행동에 나선 언론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아투위'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앞장 섰습니다.

둘째, '편집권·편성권의 독립'이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동아투위'는 '편집권이란 사진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의 비중 판단과 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므로 제작의 최고책임자인 편집국장·방송보도국장 또는 출판국장에게 속하는 전속적인 권한이다. 편집권의 행사는 경영진이나 광고주 또는 권력기관이나 폭력 등 일체로부터 독립되는 때에만 정당한 편집권 행사가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당시로서는 시대에 앞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인들의 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는 청암선생이 평생 품었던 화두이기도 합니다. 선생은 1969년에 벌써 신문의 자주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동아투위소식>의 발행과 다양한 저술·출판 활동을 통해 제도권 언론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 언론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정치계·학계·문화계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확산시켰으며, 출판·학술 등 사회 전반적인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동아투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쌓은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 받고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보다 깊이 있는 연구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동아사태'은 청암선생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직으로 생각한 언론계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유능한 언론인에서 한국언론의 큰 스승으로 저술가로 언론운동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의 가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동아투위는 강제해직에 대한 분풀이를 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 아니었기에 한국언론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자유언론 실현이라는 높은 이상으로 승화하였기에 자유언론 수호의 기수로 기억되고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과 동아일보사와의 문제해결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아투위 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셨던 가족 여러분도 이 상의 공동수상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유명을 달리 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신 위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공동으로 이 상을 주최한 한겨레신문사 정태기 사장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심사위원 여러분, 청암선생 기념사업을 지원하시는 유가족 여러분. 재단과 <송건호언론상>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과 지혜를 모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축사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동아투위는 한국언론사에 경전적 (經典的) 사건

'동아투위'가 출범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니 실로 감회가 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를 대개 30년으로 잡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세대가 바뀌는 셈입니다. 나는 '동아투위' 회원들과 그 동안 한 식구처럼 지내왔습니다. 1975년 3월 17일 동아의 신문기자들과 방송인들이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쫓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동아투위'의 행사가 있을 적마다 회원과 진배없이 자리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자유언론 실현 등 동아투위의 동지들이 온 몸을 던져 추구한 옳은 뜻에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내가 지극히 아끼고 좋아한 몇몇 '동아투위' 위원들과의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30여 년 전, 그 때의 일들을 회상하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1974년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들의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우리나라 언론사에 새로운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재권력의 야비한 광고탄압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민초들의 격려광고는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한빛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이름으로 또 교인들도 다투어 격려광고를 내는데 열성이었습니다.

'동아투위사건'은 우리나라 언론사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가 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언론인들은 물론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언론활동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경전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성서입니다. 성서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중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구약의 중심적 사건은 출애굽사건이고, 신약의 중심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적 메시지는 해방과 구원입니다. 노예생활에서의 해방,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즉, 영적·육체적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삶을 누리자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구약성서는 공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핵심적 사건을 아니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함은 그가 얼마만큼 출애굽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현실생활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투위사건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한국언론사에 있어 핵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이 사건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회상하며, 언론활동 일선에서 그 뜻에 맞게 즉, 자유언론실천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느냐가 참 언론인이냐, 사이비 언론인이냐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아투위의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마음 깊이 최대의 경의를 보냅니다. 30여 년 동안 흔들림이나 꺾임 없이 오직 이 땅에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그 온 몸을 던져 살아온 그 장한 삶에 머리를 숙입니다. 동지들이 지닌 그 투지에 용기와 인내와 노고에 대해, 그리고 겪은 시련과 아픔과 흘린 눈물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서 빨리 동지들의 자유언론성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 이 글은 이해동 선생님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30주년 축사>를 줄인 것입니다.

축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자유언론 수호의 기치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5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원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재정권 하의 엄혹한 언론통제 속에서 자유언론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동아투위'의 활동은 여전히 자본의 권력에 예속된 현재 언론의 모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의 수립 이후 언론의 자유는 말살 당했습니다. 기관원들이 언론사에 수시로 드나들며 직접 보도를 통제했고, 언론인에 대한 협박, 폭행과 테러 등이 공공연히 자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당연히 보도되지 못했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우지 못하는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제 목소리를 냈던 1974년 10월 24일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은 언론인답게 살기를 바라는 실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유신독재 정권 하에서 점점 더 옥죄어오는 언론탄압에 맞서 행동으로서 언론 자유를 위해 맞서다 1975년 3월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동아투위'는 우리 사회의 자유언론뿐 아니라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했고, 80·90년대 한국 민주언론운동사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언론자유의 회복과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결성된 '동아투위'의 활동과 그 정신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론 본연의 책무는 방기한 채, 언론기관의 상업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언론권력의 횡포는 이미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독자확보를 위한 자극적인 편집과 선정적 보도 내용,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쟁점만을 부각시키는 기사 등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언론개혁이 필요한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 지

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동아투위’의 활동과 그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론뿐 아니라 각 부문에서 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민주사회로 도약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희생정신을 통해 성취한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신 청암언론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참 언론의 힘이자 자유언론의 횃불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송건호언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 제14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정동익

자유언론 실천은 영원한 우리의 과제

저희의 선배이고 스승이셨던 송건호 선생님을 기리는 <송건호언론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쑥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건호선생님은 저희 '동아투위'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론 투위원 모두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상을 받는 것이 어쩐지 계면쩍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흔쾌히 상을 받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송건호언론상은 저희들이 더욱 더 언론운동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격려와 채찍질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송선생님은 1974년 저희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할 때 편집국장으로 모셨고 이듬해 저희들이 권력에 굴복한 회사로부터 강제해직 됐을 때 분연히 사표를 던지시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송선생님은 저희 동아투위원들의 스승이셨고 동지이셨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송선생님의 지사다운 풍모는 항상 이시대 언론인의 표상이셨습니다.

송선생님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의장과 말지 사장을 맡아 언론운동을 이끄셨는데 한겨레신문사 사장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송선생님께 부끄러운 후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아투위원들은 모두가 선생님의 염원이셨던 자유언론 실천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제단에 바쳐진 수많은 희생을 딛고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론사나 사주들만이 누리는 자유일 뿐 진실을 추

구하는 언론인 모두가 누리는 참된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이라는 외부의 압제가 사라진 지금 경영권과 인사권을 한 손에 쥔 자본의 횡포가 정도의 자유언론에 더욱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권이 기자들의 손을 떠나 언론사주로 대표되는 자본의 손에 장악될 때 그 폐해는 권력의 탄압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력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편집 편성권을 지켜내기 위해 제2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투위'에서 해방 이후 언론탄압진상규명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언론탄압진상규명은 오늘의 뒤틀린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유례 없는 혹독한 언론탄압의 역사가 한번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 '동아사태'뿐 아니라 경향신문·민족일보·사상계 폐간, 부산MBC·부산일보 주식강탈, 80년도 대량해직 사태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진상이 밝혀진 것이 없고 정부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언론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투위'가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몸은 비록 늙었지만 언론개혁을 위한 투쟁대열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언론계 후배들이 언론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송건호 선생님을 대신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송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언론운동의 한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귀한 <송건호언론상>을 저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